

제목 : 예수님이 진정 당신의 전부입니까?

본문 : 요한복음 6장 22-51절

[설교 포인트]

1. 오병이어의 역사 이 후에 왜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셨나?

- 1)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잘못되었다.
- 2)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 6:26)
- 3) “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6:27)
- 4)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육의 음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다.

2.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 1) 군중들의 관심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었다. 어떤 좋은 행위, 공로, 종교적 의무 등등
- 2)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 6:29)
- 3) 하나님은 언제나 영혼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구속을 위하여 일하신다.
- 4)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3. 표적을 요구하다.

- 1) 군중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지만, 또 표적을 요구했다.
- 2) 군중의 영성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워줄 더 큰 증거를 요구한다.
- 3) 모세가 참된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을 주신다.
- 4)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
- 5)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즉,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다.

4. 믿지 않는 군중의 영성

- 1) 군중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 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 6:37)
- 3) 연약한 자도, 실패한 자도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내쫓지 아니하신다.
- 4) 군중들은 예수님의 태어나고 자란 인간적 배경을 보고 판단하며,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한다.
- 5)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할 때 가능한 것이다. 나는 지금 반응할 것인가? 를 물으신다.

[나눔 내용]

1. 나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과 필요 때문에 찾고 있습니까?
2. 내가 지금 가장 붙들고 있는 ‘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적 욕구, 안정감, 사람의 인정, 돈, 관계는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은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줍니까?
나는 나의 종교적 행위와 성취 중심의 신앙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은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4.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지금 내 영혼에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즉,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5.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실패감, 죄책감, 두려움, 자격 없음, 영적 침체감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위로와 초청으로 들리십니까?